

COVID-19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 수집 방안 연구*

A Study on Methods of Collecting Records for COVID-19 Archives

심지연(Sim, Jiyeon)** · 김지현(Kim, Jihyun)***

1.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선행연구
2. 재난 아카이브의 정의와 수집
 - 1) 재난 아카이브의 개념 및 특성
 - 2) 전염병 아카이브에서의 기록 수집 사례
 - 3) 재난 아카이브 수집정책 사례
3. 국내외 COVID-19 아카이브 수집 현황 분석
 - 1) 국외 COVID-19 아카이브 현황 조사
 - 2) 국내 COVID-19 아카이브 현황 조사
4. COVID-19 아카이브 수집 방안
 - 1) 수집 정책 구성요소
 - 2) 수집 방법
5. 결론

* 본 논문은 2021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제1저자)(iamidentity@ewhain.net).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교신저자)(kim.jh@ewha.ac.kr).

■ 투고일: 2021년 09월 30일 ■ 최종심사일: 2021년 10월 09일 ■ 최종확정일: 2021년 10월 26일.

■ 기록학연구 70, 189-243,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70.189>

〈초록〉

COVID-19 아카이브는 재난 아카이브의 일종으로서 재난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과 복구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COVID-19 아카이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난 아카이브 관련 정의와 목적을 정리하고, COVID-19 아카이브 수집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해외 재난 아카이브 수집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에서 관련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 정책과 수집 방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COVID-19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 수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수집 정책 수립을 위해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보편적인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집 정책 요소로 선정하였다. 둘째, 참여자 집단의 다양화를 위해 수집 대상의 명확한 정의 도입과 유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기록콘텐츠 제작 등 홍보 방식의 다각화, 기록 기증에 제한이 되는 저작권 관련 사항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셋째, 참여형 기록 수집 방식의 도입과 이에 따른 참여양식의 효과적인 설계,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코로나19, 재난기록, 재난 아카이브, 전염병 아카이브, 기록 수집

〈Abstract〉

COVID-19 Archives are some of the Disaster Archives. It is necessary to collect disaster records produced in real-time at the disaster scene rather than start collecting records after the disaster recovery. Therefore, this study summarized the definition and purpose of disaster archive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COVID-19 archives and examined overseas disaster archive collection policies that can be referenced in establishing a COVID-19 archive collection policy. In addition,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institutions that

establish and operate related archives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record collection Improvement plans for the COVID-19 archive were proposed: Firstly, in terms of collection policy improvements, the essential elements identified in the survey were selected as additional collection policy elements. Secondly, diversification of participants' groups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clear definitions of collection targets, diversification of promotional methods such as recording record contents through collaboration with related departments, and improving copyright issues that limit record donation. Thirdly, participatory record collection methods with efficient questionnaires in participatory forms and privacy issues are proposed as improvement plans.

Keywords : COVID-19, Disaster Records, Disasters Archives, Pandemic Archives, collecting of archives

1. 서론

1) 연구의 목적

COVID-19(coronavirus disease of 20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환자에서 최초 확인된 신종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으로서(국립보건연구원, 2020), 2020년 2월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와 더불어 비대면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범유행전염병이다. COVID-19는 자연 재난인 동시에 사회 재난이며 이로 인한 개인, 조직, 국가 차원에서의 변화와 영향은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록관리학의 관점에서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을 재난의 일종으로 보고 이를 기록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재난기록은 재

난의 피해, 수습, 복구 및 예방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지칭하며 공공과 민간 분야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호선, 오효정(2018)에 따르면 재난기록은 재난 수습 단계에서의 업무적 가치, 예방 및 정책 수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설명책임성을 비롯한 증거적 가치, 학습 및 연구를 위한 정보적 가치, 사회적 기억의 공유와 치유, 예술적인 표현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재난 아카이브(disaster archive)는 곧 재난기록 자체이자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조직이며 재난이라는 “기준이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모은 인위적인 기록의 집합체”(한국기록학회, 2008)인 매뉴스크립트이다. 따라서 재난 아카이빙은 기록을 통해 재난을 재현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피해자와 사회구성원, 미래 세대에 전할 만한 자료들을 인터넷 기술을 통해 수집 및 보존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김현정, 2017).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기록은 한국에서 “진실 규명, 올바른 기억의 형성과 유지,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 안전한 사회의 건설”(안병우, 2015, 240)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른 법령상의 변화는 2014년 12월 신설, 2020년 12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4항에서 명시한 재난백서 작성 규정 등에 반영되어 있다. 이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를 겪으며 사회적 소통과 감염의 추적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을 통한 공론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들은 주로 백서 발간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왔다. COVID-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에서도 2020년 12월 전 중앙행정부처에 COVID-19 기록화 지원 가이드 공문을 하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백서를 발간할 계획을 보도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2020).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재난백서 발간을 위해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유신성, 오효정, 2021)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이러한 전염병과 관련된 기록을 사건의 재현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을 시작으로 하여 1957년 아시아 독감, 2009년 조류독감, 2015년 MERS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을 재난의 한 종류로서 인식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해왔다. 활발한 매뉴스크립트 전통을 유지해 온 기록관 및 도서관, 박물관은 이러한 재난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및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해외 COVID-19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지방정부 혹은 대학 소속의 기록관,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것이 다수이며, 영미권 및 유럽 국가에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광범위한 COVID-19 아카이빙 프로젝트 중 하나인 The Journal of the Plague Year: A Covid-19 Archive (JOTPY)¹⁾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학과 간 공동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학생 집단 및 사회 공동체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학도서관(NLM)²⁾에서는 기존 질병 관련 웹 아카이브인 Global Health Events web archive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2016년 지카바이러스감염증(Zika virus infection)에 이어 2020년부터 COVID-19 관련 웹 기록물 및 SNS 기록물을 아카이빙 중이다. 그 밖에 COVID-19라는 단일한 주제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에는 퍼스 박물관³⁾, 캘리포니아 시립도서관⁴⁾, 컬럼비아 대학 기록관⁵⁾ 등이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기록관이나 도서관 또는 박물관이 주도하는

1) <https://covid-19archive.org/s/archive/page/Share>

2) <https://circulatingnow.nlm.nih.gov/2020/03/26/archiving-web-content-on-the-coronavirus-disease-covid-19/>

3) <https://www.museumofperth.com.au/covid19>

4) <https://covidlibraries.library.ca.gov/>

5) <https://library.columbia.edu/libraries/cuarchives/covid-19.html>

COVID-19 아카이빙 사례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국립중앙도서관 웹아카이브인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에서는 COVID-19 관련 웹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코로나19 현장기록사진⁶⁾ 69건을 근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에서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타일벽화아트와 단어편찬사전을 제작하는 코로나19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였다(뉴스와이어, 2021). 공공분야 이외에서 진행되는 COVID-19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중앙대학교의 “COVID-19: 우리의 기억”프로젝트⁷⁾, 시민건강연구소의 “한국의 코로나: 시민 아카이브”⁸⁾, 성북문화원 산하 성북마을아카이브⁹⁾ 내에 공개된 COVID-19 극복에 관한 시민기록물 등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COVID-19 아카이빙은 대부분 한시적인 과제에 그치고 있으나 COVID-19로 인한 사회적 영향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기록 수집 및 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재난 현장은 많은 양의 정보가 유실 또는 훼손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건 이후 기록 수집을 시작하는 것보다 재난 발생과 복구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이미영, 2009). 따라서 COVID-19 아카이브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아카이브의 구축 목적을 명확히 하고, 법적 고려 사항과 다양한 유형에 대한 수집 기준, 보존 계획을 포함하는 수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관에게 수집 정책은 법적인 근거와 기록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신동희, 김유승, 2016).

6 <http://archive.much.go.kr/data/03/folderView.do?jobdirSeq=1744>

7) <http://okfn.kr/projects/covid-19-our-memory/>

8) <http://korea-covid19.net>

9) <https://archive.sb.go.kr/>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COVID-19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집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COVID-19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14개 기록관 및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성북마을아카이브 등 국내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COVID-19 아카이브 수집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명확한 수집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해외 재난 아카이브 두 곳을 대상으로 수집 정책에 포함된 요소와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COVID-19 아카이브 수집 방안 제안에 반영하였다. COVID-19가 아직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아카이빙 역시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으나, 전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재난으로서 COVID-19 기록 수집의 필요성은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할 개선 방안은 향후 국내에서 COVID-19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할 때 수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먼저 문헌조사의 경우 국내외 재난기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COVID-19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사례조사 대상 기관 선정에 있어 해외 COVID-19 아카이브 중 명확한 수집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기관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재난 아카이브 중 상세한 수집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COVID-19 아카이브에 적용 가능한 정책 요소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사례들로 상세한 수집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속 지진재난 아카이브 HINAGIKU와 미국 9·11 메모리얼 아카이브를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집 정책에 포함된 주

요 요소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기관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COVID-19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감염병이고 COVID-19 아카이브의 조성 연혁 역시 길지 않음을 감안하여 COVID-19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미술관 등 주로 문화유산기관을 중심으로 폭넓게 검색을 수행하였다. 먼저 해외 기관 선정을 위해 구글 검색을 활용하여 ‘Covid-19 Archive’, ‘Pandemic Archive’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COVID-19 관련 아카이브 중 수집 정책과 매체에 있어 비교적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도서관 19개, 기록관 36개, 박물관 5개 기관 등 조사대상 기관 60개를 선정하였다(부록 1) 참조). 이후 각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담당자의 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구글 독스(Google Docs)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60개 기관 중 14개 기관(도서관 7개, 기록관 6개 및 익명 응답 1개 기관)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국내 기관의 경우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COVID-19 아카이빙 활동이 보도된 10개 도서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COVID-19 관련 웹 기록을 수집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OASIS와 성북문화원 산하 성북마을아카이브에서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3)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재난기록 수집에 관한 연구, 개별 아카이브 내 수집 정책에 관한 연구, 2020년 COVID-19 상황에서의 아카이빙 시도에 관한 연구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우선 국내외 재난기록에 관한 연구 중 이미영(2009)의 연구는 도큐멘테이션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1995년 일본 한신 아와지 대지진에 대한 지역사회 기록화 움직임은 다르었다. 수집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록을 생산하거나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집 대상을 규정하였고, 특히 행정문서 위주의 이전의 재난 관련 기록과는 다르게 일상의 변화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수집할 가치가 있는 기록으로 간주하였다. 국가 주도의 수집 이전 민간 차원에서 지역 내 대학-재해대응 조직 간 협력을 통한 망라적 수집, 나아가 재해 이후의 기록관리를 강조함으로써 기록 수집을 곧 지역의 네트워크로 발전시킨 사례를 소개하였다. 박진경과 김유승(2017)은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중 이용자 참여 기능을 운영 중인 6개 기관(인간과기억아카이브, 오픈아카이브, 911아카이브, People's Collection Wales, African Activist Archive, South Asian American Digital Archive)을 선정하여 사례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들 참여형 아카이브에서는 OMEKA나 AtoM 등의 소프트웨어, 트랜스크립션 기능, 콘텐츠 공유, 컬렉션 생성 및 커뮤니티 기능 등을 통해 이용자가 웹 상에서 기록을 업로드하고 기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례 비교 분석을 진행하여 각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책이 이용약관, 수집 주체, 저작권 정책, 수집 정책, 수집 범주, 기술요소, 분류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도표로 제시하였다.

한희정 외(2017)의 연구는 재난안전정보 아카이브를 위한 현황분석과 구축전략을 다루었다. 국민안전처 및 재난안전 유관기관을 조사하여 자료의 유형, 아카이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법령 개정과 위치정보, 목록정보의 통합적 제공, 이용자 맞춤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후 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재난 아카이브, OASIS 재난 아카이브, JDA, 9·11 메모리얼 아카이브를 비교분석하여 재난안전 기록정보자원 전수조사-자동화 가능성 분석-아카이빙 대상 선별-메타데이터 자동수집 단계를 포함한 아카이브 구축 단계를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추가

적으로 한국사회가 실감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대규모 재난인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 수집에 관한 연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송주형(2015)과 홍영의(2015)의 연구는 시민기록위원회의 기록 수집 활동에 집중한다. 기록물의 실태 파악을 우선으로 하여 추모기록과 생존자 구술, 사진기록 생산 등의 조직적인 기록 수집 활동이 유가족 및 시민단체의 광범위한 협력 하에 진행되었다. 기록물의 현장 생산에서부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회적 치유 및 전승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민간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된 기록 수집의 과정을 상세하게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병우(2015)의 연구 또한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민기록위원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어떻게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였는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다종 다양하며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향후 세월호 아카이브가 지역 아카이브이자 공동체 아카이브가 될 것임을 예측하고, 수집 과정을 위한 기록전문가 대상 교육의 필요성과 기록화를 위한 조직 구성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 및 국외 소재 단일 재난 아카이브의 수집 정책에 대하여 Rivard(2014)의 연구는 9·11 디지털 아카이브와 허리케인 디지털 메모리 뱅크(HDMB)를 비교선상에 놓고, 디지털 시대의 아카이브가 수집과 선별, 전시를 통해 어떻게 다문화 시대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억 이론에 입각하여 웹 상의 'Instant history'를 구성하는 E-mail 메시지, 개인 블로그, 참여자들이 템플릿에 직접 작성한 내용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내용의 필터링 여부나, 'Collecting Everything'으로 대표되는 전방위적 수집 정책이 담고 있는 민주적인 함의 등을 본격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최근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 방식에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혜지와 이승휘(2018)의 연구는 9·11 메모리얼이 관리하는 컬렉션에 집중하여, 재난기록을 다루는 기관이 갖는 복합적인 의미와 온

라인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민 참여 거버넌스 방식을 탐구하였다. 웹사이트 및 「컬렉션관리정책」의 내용을 토대로 수집 주체와 그 권한, 수집을 위한 평가 프로세스, 수집 절차와 등록 절차를 분석하였는데, 컬렉션 수집 절차와 기증절차에 있어 9·11 메모리얼이 제정한 기증서 작성과 평가, 저작권 입수를 통한 컬렉션 등록 규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범유행전염병 관련 아카이빙 전략에 대한 유용한 참고사례를 제공하였다.

이밖에 일본의 재난 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다루는 Sugimoto(2014)의 연구는 의사결정에 있어 디지털 아카이브가 갖는 역할을 정의하며 아카이브 구축 이전 거버넌스의 활동과 상호운용성의 관점에서 메타데이터 입력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1995년 대지진의 경험을 계승하여 재난 아카이브인 HINAGIKU¹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동 디지털 자원 수집과 커뮤니티 아카이빙 방법론의 도입을 서술하고 있다. 국내 사례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사건 아카이브의 수집 정책에 관해 논의한 신동희와 김유승(2016)의 연구는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기록을 위한 플랫폼의 제작과 구현 과정에서 정립되어야 할 수집 정책의 범위, 방향, 방법과 주체를 정의하였다. 수집 정책은 법적 고려와 공유 및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의 수집 정책과 차이를 보이는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공통 정책 요소를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사명 기술, 대상 이용자 정의, 수집 범위와 대상, 수집 절차 등을 포함하는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정책 초안을 제정하였다. 특히 수집 절차의 측면에서 디지털 변환과 구술기록 보존, 이용자 참여 기록의 수집 등을 상세히 명시하였다.

양상미(2008)는 연구의 범위를 대학기록관으로 한정하여 대학기록관의 수집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록물 수집 정책에 관해 일반현황, 수집

10) <https://kn.ndl.go.jp/en/#>

정책의 성문화, 수집 정책의 이용, 협력 등의 분야로 나눈 기관별 설문지를 개발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관련 설문 문항 구성에 참고가 되었다. 정혜지(2016)의 연구는 정혜지와 이승휘(2018)의 연구에 앞서 9·11 메모리얼의 설립 과정과 기록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다루었으며, 특히 9·11 메모리얼의 미션에 대한 서술을 통해 추모와 기억보존이라는 재난 아카이브의 사명을 조사하였다. 또한 컬렉션 수집 권한과 절차,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서술을 제공하여 넓은 범위의 매뉴스크립트 기록관이 어떻게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김현정(2017)의 연구는 재난기록의 웹 아카이빙이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416 기억저장소, 9·11 메모리얼, JDA(Japan Disaster Archive) 등을 분석하고 OASIS에 구축된 재난 아카이브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기록관리의 입장에서 확장된 시공간 하에서 생산되는 재난기록의 수집과 서비스 방안에 집중하였고, 지침 수립과 참여형 아카이브 모형 등의 방안을 제시한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이외 2020년 COVID-19 상황에서의 아카이빙 시도에 관한 연구로서 Lee와 Springer(2020)의 연구는 Columbia University의 교수들에 의해 진행된, 구술을 통한 COVID-19 경험의 현장성에 대한 아카이빙을 논의하였다. 판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구술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수업 중 콘텐츠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 축을 이루며, 현재진행형인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원격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다루고 있다. 또한 홍승혜 외(2020)의 연구는 재난기록관리의 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온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의 백서 출간 흐름과 앞으로 발간될 COVID-19 백서와의 연결점을 탐구하였다. 재난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 기록이자 인식 제고의 수단인 백서를 다양한 행위 참여자들이 남긴 기록으로 바라보고, 재난 상황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이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서술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재난기록의 사례와 종류에 대한 연구,

단일 아카이브에 대한 사례연구, COVID-19로 인한 개인 서사와 웹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빙 시도 및 전망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COVID-19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에서 확고한 정책과 지속성을 가진 COVID-19 아카이브 수집 정책에 대한 사례는 조사되지 않은 실정이다. 지속성과 법적 근거를 담보하는 수집 정책의 마련과 수집 방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살피고 이를 새로이 구축되는 COVID-19 아카이브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재난 아카이브의 정의와 수집

1) 재난 아카이브의 개념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재난 아카이브 정의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재난 아카이브로서의 COVID-19 아카이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먼저 재난, 재난기록, 재난 아카이브의 정의를 차례대로 살피고 그 특성과 가치에 대해 증거의 차원, 예방의 차원, 집단적 기억의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우선 재난의 의미를 살펴보면 폭넓은 의미에서 재난(disaster)은 천재지변을 포함한 인간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총합이지만, 재난에 관한 현대의 정의들은 재난의 인위성, 누적성, 불확실성, 광역성, 주관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김원제, 2003; 주장원, 2015). 재난기록은 일차적으로 재난의 진행과 동시에 생산되는 자료이며, 사회적으로는 관련 주체들이 복구 과정에서 생산하는 유무형의 자료, 변화된 사회를 보여주는 자료를 포함한다. 현대에 들어 재난기록은 재난의 확장된 정의를 반영하여 디지털 기록의 증가와 재난 유형의 복잡성으로 인해 생산의 지속성, 주체 및 매체의 다양성, 해석의 주관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

다. 공공 영역에서 재난기록의 정의는 정부기관의 활동과 보도자료 등 공식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재난을 겪은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적 기억과 성찰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박찬희, 2019, 9). 또한 재난 아카이브는 특정한 방법론에 입각한 기록보존소라기보다 재난이라는 주제를 반영하는 매뉴스크립트에 가깝다. 재난 아카이브 정의에 대한 학술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아카이브 구축 사례와 연구에서도 기록물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명칭과는 다른,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난 아카이브의 사회적 가치는 크게 증거의 차원, 예방의 차원, 집단적 기억의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증거의 차원에서 아카이브는 재난의 수치적인 규모, 공식적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규모,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과정, 추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난에 대한 예방 정책 수립, 개인과 집단의 경험과 기억에 이르기까지 해당 시점에 발생한 사건과 현재를 연결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한다.

두 번째로, 재난의 원인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예방의 차원에서 재난 아카이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국가위기 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국가위기는 국민의 생명·재산 및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건이나 상황이다. 국가위기에 속하는 안보위기, 사회위기, 자연재난이 초래한 위협 속에서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적인 관습이 악화될 수 있기에,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 교육, 고용, 주거, 식량안보를 지원하는 제도를 혁신하고 강화해야 다음 위기에 대비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집단적 기억의 차원 또는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을 기록화 하여, 보존, 확산시키는 것으로 집단 기억을 생성, 계승시키는 역할”(박찬희 2019, 11)으로서의 재난 아카이브는 개인에 대한 기록에서 집단 또는 사회에 대한 기록으

로 확장될 수 있다.

재난 아카이브의 일종으로서 전염병 아카이브는 위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다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전염병은 대표적인 사회적 재난이며, 지진, 수해, 전쟁과 같은 다른 사건이 원인이 되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염병 상황 하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구조의 불평등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생산되며, 이를 통해 해당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국가 간의 관계 및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의 요소를 다층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한순미, 2021, 60)

두 번째로, 전염병은 현대사회에서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염병 아카이빙은 동일한 재난에 대한 전국가적, 전세계적 반응을 관찰하고 이들 기록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SNS기록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오늘날 전염병 아카이브가 갖는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전염병 아카이브의 기록 또한 COVID-19와 관련한 문서와 통계 등의 공공기록이 아닌 개인의 경험을 반영하는 내러티브 위주 기록이다.

2) 전염병 아카이브에서의 기록 수집 사례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아카이브의 가장 가까운 참고사례가 될 수 있는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와 문헌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COVID-19 아카이브 사례와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1)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아카이브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1918 influenza pandemic)은 스페인 독감

(Spanish Flu)이라고도 하며, 1957년 아시아 독감(H2N2), 1968년 홍콩 독감(H3N2) 등 변이된 조류독감(avian influenza)들(H1N1)의 시초로 추정되는 전염병이다(동아일보, 2021).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은 전염병이라는 요소 이외에 100년의 시차를 가진 COVID-19와의 네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시대 유행한 콜레라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피해를 입혔던 전염병이자, 언론을 통한 기사화 및 국제적인 재난 대응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례이기도 하다. 둘째, 약물을 통한 치료 이전에 마스크 착용 강제, 집합 금지, 학교나 교회 휴업 등의 방법이 시도되어 일정한 효과를 보았다(김신권, 2021, 48). 셋째, 재난 상황 하에 공식적인 기록과 다른 개인 및 집단의 목소리가 아카이브 안에서 비대칭적으로 반영되었다. 넷째, 공공기관과 기록관,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수의 매뉴스크립트가 구축되었다. 1918년 인플루엔자는 대응과 복구가 완료된 재난이므로 이미 수집이 완료된 아카이브라는 점에서 COVID-19 아카이브에서 기록 생산과 수집의 복구 기간, 수집 이후 아카이브 구축 등의 영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한다.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한 기관 중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 기록을 제공하는 사례는 대표적으로 세 곳이며, 미국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CDC), 미시간 대학(University of Michigan)이 있다.

첫째, 미국 NARA에서 만든 온라인 전시 페이지인 “The Deadly Virus: The Influenza Epidemic of 1918”은 NARA에서 소장하는 사진과 문서들 중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진과 전보 등은 JPEG 파일, 문서류는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본의 경우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공하는 기록물의 건수가 16건에 불과하여 관련인 및 연구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시 차원의 페이지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CDC에서 1918 인플루엔자 범유행 90주년을 기념하여 수집 및 공개한 전자자원인 “Pandemic Influenza Storybook”이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4개 주에서 온 50명의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918년 유행과 관련이 있는 1957년, 1968년의 유행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에세이의 주제인 개인적인 전염병의 극복기(I Survived), 이민자의 시선(Immigrants’ Tale), 가족들의 죽음(In Memorial), 군대에서의 경험담(War Stories), 매장(Plantings), 치료법 개발(Finding A Cure), 1957년 인플루엔자 유행(1957 Flu Pandemic) 등 세부 주제에 따른 분류와 생존자들의 출신 주에 대한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는 갤러리에서는 생존자의 이야기에서 언급된 과거 인물들의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재난 발생 90주년을 맞아 당시를 겪은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기 이전에 가능한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구술의 방식을 선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2012년 미시간 대학과 CDC가 협력하여 조성하였고, 2016년 개정된 2판 버전으로 서비스 중인 아카이브 페이지 “The American Influenza Epidemic of 1918-1919: A Digital Encyclopedia”가 있다. 해당 아카이브의 이론적 배경이 된 연구는 CDC와 하버드 대학에서 합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인플루엔자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 이전의 마스크 착용, 휴업, 감염자 격리 등 비약물적 개입을 통해 지역사회가 어떻게 전염병에 대처하였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백과사전의 형식을 빌려 50개의 미국 도시들이 어떻게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에 대응하였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정보의 출처는 다른 아카이브에서 수집한 신문기사, 게시판 공고, 기타 문서들이다. 각 도시마다 상세한 에세이와 타임라인을 제작하였으며, 이미지에 대한 별도의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COVID-19 관련 아카이브 다수가 현재 기관별 수집에 머무르고 있으며 리포지터리 사례를 제외하고 국제적인 차

원에서 협력적인 수집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아카이브 구축 단계에서의 수집에 대해 해당 연구와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2) COVID-19 관련 아카이브

본 연구에서는 문헌의 형식으로 정리된 기존의 COVID-19 아카이브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2020년부터 빠른 속도로 구축되고 있는 COVID-19 아카이브는 기존의 다른 전염병 아카이브와 공통점도 존재하지만 수집 방식과 매체에서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수집 매체에 있어 기존의 기술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SNS 기록물, 웹 기록물, 데이터 형식 기록물, 동영상 기록물을 본격적으로 수집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였다 이전의 전염병 아카이브에서도 SNS 상의 이미지나 데이터 형식 기록물을 수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COVID-19는 전세계적으로 심대한 여파를 미친 재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록물의 생산이 더욱 활발해진 측면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이하 NLM)의 포괄적인 웹 수집 사례가 있다. NLM은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가 COVID-19를 국제적인 관심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보건 위기를 문서화하는 차원에서 웹과 소셜 미디어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웹 수집은 NLM의 수집 개발 지침에 의해 지원되며, 이 지침에서는 웹사이트, 블로그, SNS 및 기타 웹 콘텐츠를 건강과 의학의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웹 문서 및 SNS 문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주 변경되며 예고 없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NLM은 다른 도서관 및 기록관과 함께 현재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식별하고 수집 및 보존하여 향후 연구를 위해 이를 보존하고 있다. 아카이브-잇(Archive-It) 서

비스를 이용하여 획득된 콘텐츠들은 보존 형식인 WARC(Web ARChive) 파일 포맷으로 보존된다.

둘째, 수집 방식에 있어 기증과 이관을 위주로 하던 방식에서 아카이브의 적극적인 조사와 이용자 참여를 통한 기록 수집의 사례가 증가하였다. Wheelock, Dickson, Barrett(2020)의 RCPI(Royal College of Physicians of Ireland) 주관 COVID-19 관련 내러티브 수집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적이고 익명화된, 그리고 총체적인 경험을 포착하기 위하여 성별, 인종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시각에서 쓰인 서사를 이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내러티브, 특히 일기와 회고록 종류는 공식적인 기록이 알려주는 사실과 더불어 글쓴이의 개인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창구이기도 하다. 사건 당시에 의료인과 지역사회가 생산한 기록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포착하고, 사회, 문화, 심리적 구조에 미치는 재난의 영향을 기록하는 것은 향후 COVID-19 아카이브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이다. Neatrou, Myntti, Wittmann(2020)의 미국 유타 주 J. Willard Marriott Library에서 구축한 COVID-19 디지털 컬렉션에 관한 연구도 이러한 참여형 기록의 수집을 자세히 보여주는 예시이다. 이 기관에서는 기증을 요청하기 위해 프로젝트 웹사이트와 SNS에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초기에 업로드된 사진들의 주제는 주로 식료품점의 빈 선반 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승을 반영하는 자료, 마스크 제작, 화상 회의, 자가격리 상황 하의 취미생활 등 COVID-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기록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COVID-19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구술을 통한 기록의 수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구술 수집은 잊혀진 목소리에 대한 기록과 기존 아카이브 내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영역이다. Adams와 Milstein(2020)의 연구는 컬럼비아 대학의 COVID-19 구술사 아카이브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담에서 사회과학과 구술사 방법론을 결합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염병 유행 기간 동안 뉴욕 시민들의 살아 있는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는 구상 이후 연구윤리위원회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 NSF)의 지원을 받아 사회학자와 구술사 연구자들로 구성된 25명의 인터뷰어 팀으로 구성되었다. 주로 화상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인터뷰는 접속 문제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단점도 있으나 기술과 인력 면에서 편리함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 중 하나로 Tebeau(2021)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주도로 이루어진 JOPTY(A Journal of the Plague Year)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이해하였는지를 서술하였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염병에 대한 대응 방식은 기존의 관행과 크게 달라졌고, 아키비스트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회 변화를 신속하게 기록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 있어 수집 이후 즉각적인 메타데이터 기술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는 9·11테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디지털 메모리 뱅크(Kartina Digital Memory Bank)를 거쳐 발전된 것으로, 아카이브를 단순히 전시 기법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COVID-19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들은 아카이브 구축 과정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아카이브의 구축 과정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시사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매체와 주제의 다양성을 포괄하면서도 확고한 지속성을 가진 COVID-19 아카이브 수집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재난 아카이브 수집정책 사례

현재진행형인 COVID-19의 특성으로 인해 상세한 수집 정책을 제시하는 COVID-19 아카이브의 사례를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대신 수집 정책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참고

할 수 있는 재난 아카이브인 국립 9월 11일 추모관 & 박물관 사례와 HINAGIKU를 선정하였다. 두 기관은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재난 아카이브 가운데 모범적인 재난기록관리 사례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또한 하나의 완결된 사건을 다룸과 동시에 현재까지도 그 피해상이 수집되고 있어 현재 진행되는 COVID-19 아카이브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국립 9월 11일 추모관 & 박물관 수집 정책 분석

9·11 테러가 미국 사회, 나아가 세계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듯 9·11 테러 관련 아카이브는 현재까지도 특정 사건에 대한 단일 아카이브 중 가장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2014년 5월 16일 그라운드 제로에 건립된 국립 9월 11일 추모관·박물관(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이하 9·11 메모리얼)은 2,136건의 영구보존문서를 포함한 10,313점의 전시물을 소장 중이다. (정혜지, 이승휘, 2018). 9·11 메모리얼에서 현재 공개 중인 기록 수집에 관한 문서는 「컬렉션관리정책(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이하 「컬렉션관리정책」)」(2018)이 있으며 해당 정책 내용과 사이트 내의 설명을 참고하여 9·11 메모리얼의 수집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수집 목적, 수집 대상, 수집 매체, 수집 방식 총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컬렉션관리정책」의 수집계획서(Statement of Purpose)에 의하면 컬렉션은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증명하고 인간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향해 변함없이 전념”함을 위해 수집된다. 두 번째 요소인 수집 대상에 관해서는 「컬렉션관리정책」 1장 수집 범위와 프레임워크(Scope and Intellectual Framework of Collections)에서는 9·11 테러가 하나의 사회현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컬렉션 수집에 관한 시공간

적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여 제시하였다. 세 번째 요소인 수집 매체의 관점에서, 9·11 메모리얼의 컬렉션의 주제는 수집 정책에 명시된 물리적 형태에 따라 크게 예술 창작물, 웹사이트, 기증된 물품, 구술기록, 유해로 나뉜다. 수집 매체별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컬렉션의 사명을 위해 입수한 물품
- ② 컬렉션: 발굴된 건물 잔해, 물리적 물체, 구술기록, 미술품, 건축 자재, 영화, 비디오 및 오디오 화면, 사진, 포스터, 전단지, 기념품, 간판 및 개인 소지품 등을 포함
- ③ 예술작품: 아티스트 레지스트리를 통해 창작 및 수집된 예술 작품
- ④ 웹사이트: 정보 및 연구 목적으로 9·11 테러를 조명하는 웹사이트
- ⑤ 기증된 물품: 방문객들이 남긴 기부 물품 및 방명록
- ⑥ 구술기록: 생존자, 최초 대응자, 목격자, 가족, 공무원, 예술가의 관점을 구술사 표준을 준수하여 기록된 오디오 및 비디오
- ⑦ 유해(Human Remains): 9·11 테러 현장에서 식별되지 못한 유해

넷째, 수집 방식에 있어서 9·11 메모리얼이 보유한 컬렉션은 개인, 조직, 단체, 기관으로부터의 입수 및 기증, 유증, 구매, 위임, 이관 방식으로 수집된다고 볼 수 있다 기록의 수집 방식은 크게 기증, 구입, 참여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수집 방식별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유증, 기증, 이관 및 교환: 기증서 작성, 평가, 저작권 입수, 등록, 기증서 검토의 순서대로 진행.
- ② 구입: 매년 제출하는 구매예산의 경우 재정 투자위원회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예산 내에서 구입. 이외 개별 물품 구매 시 해당 물품의 가격에 따라 권한이 있는 직책 또는 이사회 승인 후 구매.

- ③ 참여: 일반인들이 테러에 대한 경험과 관련 창작물을 업로드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레지스트리를 통한 수집.

(2) HINAGIKU 수집 정책 분석

HINAGIKU는 일본국립국회도서관(The National Diet Library)과 일본 총무성이 합작하여 2013년 설립한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현재 HINAGIKU에서는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한 음성, 영상, 이미지, 기타 웹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HINAGIKU에서 현재 공개 중인 기록 수집에 관한 문서는 「국립국회도서관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 기본 방침(国立国会図書館東日本大震災アーカイブ構築プロジェクトの基本的な方針; 이하 「아카이브 구축 방침」)(2013)과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 수집 등 실시 계획(東日本大震災アーカイブ収集等実施計画; 이하 「수집 실시 계획」)(2013) 두 가지가 있다. 위의 매뉴얼들과 HINAGIKU 사이트 내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집 방식을 참고하여 HINAGIKU의 수집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수집 목적, 수집 주체, 수집 매체, 수집 대상, 수집 방식, 수집 이후 단계 총 6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로, 「아카이브 구축 방침」 2장 1절에서 밝히는 동일본 대지진 아카이브 구축의 구체적인 목적은 “국내외에 분산된 동일본 대지진의 기록 등을 국가 전체적으로 수집·보존·제공”하고, “관련 관민의 기관이, 각각의 강점을 살려 분담·제휴·협력해, 전체적으로 국가의 지진 재난 아카이브로서 기능”하며, 나아가 “동일본 대지진의 기록 등을 국내외에 발신함과 동시에 후세에 영속적으로 전하고, 재해지의 부흥 사업, 향후의 방재·감재 대책, 학술 연구, 교육 등에 활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수집 주체에 관해 다루는 「수집 실시 계획」 7장은 실체가 있는 기록물의 수집·조직화·보관에 대해서는 수집 서지부, 칸사이관 전자 도서관과와 전자 정보부가 나누어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로, 국립국회도서관이 우선적으로 수집하는 매체는 형태 면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주로 수집하나 출판물로서 배포되지 않은 종이 매체도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 국립국회도서관에 의한 수집이 힘든 경우에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메타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므로, 매체에 있어서 수집의 제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주제에 따라 지역사회와 관련이 있는 기록 중 행정박물은 가급적 이관하지 않고 생산기관에서 수집 및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네 번째로, 「수집 실시 계획」 4장에서는 우선수집대상이 되는 기록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① 공공기관이 소장 또는 작성한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기록 및 피해지역의 해당 기관 활동 기록 등
- ② 공공기관이 소장 또는 작성한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기초적 데이터 등
- ③ NPO, 자원봉사단체 등 중 특히 전국 규모의 기관, 단체 등에 의한 동일본 대지진 관련 활동 및 피해지 상황에 관한 기록 등
- ④ 학·협회 등의 학술기관·단체에 의한 동일본대지진과 관련된 조사·연구 성과 및 그 성과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 데이터 등
- ⑤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동일본대지진에 관련된 활동의 기록 등
- ⑥ 피해지역의 NPO, 자원봉사단체 등에 의한 동일본 대지진 관련 활동 기록 등 중 동영상, 음성 등 특히 관계기관 등이 수집 대상으로 삼지 않은 기록

- ⑦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피해 및 사고에 관한 기록 등
- ⑧ 동영상, 화상 등 중 동일본대지진 피해에 관한 학술적·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

다섯 번째로, 구체적인 수집 방식을 설명하는 「수집 실시 계획」 2장 ‘수집 등의 방법’에서는 HINAGIKU가 채택할 수 있는 수집의 종류를 당관에 의한 수집, 타 기관 소재 기록의 보존 지원, 검색 제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에 의한 수집은 제도적으로 수집 가능한 기록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외의 기록 등에 대해서는 기록 등을 소장 또는 작성한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의 기증, 기탁, 허락 등에 기초하여 수집한다. 특히 매체와 관계없이 아카이브 구축에 임하는 다른 관계기관 등에 의한 보존이 어려운 기록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만약 해당 아카이브 활동이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이관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대신 승계하여 관리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메타데이터 수집과 검색 제휴를 통하여 다른 기관과 협력이 용이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 「수집 실시 계획」 6장 ‘조직화·보관·제공에 관한 방침’에서는 수집 이후의 조직화, 메타데이터의 작성, 보존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한다. HINAGIKU에서 수집된 기록은 채택한 수집 방식에 따라 조직화의 방식도 달라지며, 특히 현행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원래 기록을 소장하고 있었던 기관·단체 등이 작성한 메타데이터를 원칙으로서 존중하지만, 추가적인 기재를 위해 생성 일시·장소, 작성자, 저작권자 등 기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3) 시사점

재난 아카이브에 특화된 수집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 두 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수집 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수집 주체, 수집 목적, 수집 대상, 수집 매체, 수집 방식, 수집 절차, 저작권 관련 사항 등의 공통된 요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수집 방식에 있어 세부적인 절차는 다르지만 재난 아카이브는 관련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크게 기증, 구입, 참여, 이관, 직접 조사, 기관 간 협력과 같은 방식을 이용한다. 둘째, 매우 다양한 출처와 매체, 맥락을 가진 기록들이 꾸준히 생산되는 재난기록의 특성 상, 수집 정책에서 수집 범위와 제외대상을 확실히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난 아카이브의 예상 이용자를 명확히 설정하고 확실하게 제공 가능한 자료(예, 구술 기록, 이미지, 신문기사, 시각화 자료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셋째, 참여형 아카이브의 효용에 더 주목하여야 한다. 집단적 기억의 차원으로 재난 아카이브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학술적, 증거적인 가치에 더해 수집 단계에서부터 지역 구성원의 아카이빙 과정 참여가 늘어났다. 또한 웹 아카이빙의 확대로 인해 이용자와 아카이브 간의 거리가 기존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가 아카이브를 이용하여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생성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 넷째, HINAGIKU와 9·11 메모리얼 모두 동일한 재난에 관한 기록을 수집 중인 다른 아카이브와의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검색 제휴와 링크 제공, 폐지기관 승계 등의 방식으로 자칫 수집 이후 멸실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출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국내외 COVID-19 아카이브 수집 현황 분석

1) 국외 COVID-19 아카이브 현황 조사

본 연구에서는 해외 소재 기관을 대상으로 COVID-19 관련 기록의 수집 정책 및 절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COVID-19 아카이브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글 검색을 통해 COVID-19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하는 60개 기관(〈부록 1〉 참조)을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대상 기관은 개별 웹페이지를 제공하며, 각 지자체나 대학, 학회 소속이거나 독립적인 부서로서의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COVID-19 아카이브의 수집 목표와 수집 절차 간의 연관성, 성문화된 수집 정책의 존재 여부, 수집 매체별 수집 절차 및 COVID-19 아카이브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구글 독스(Google Docs)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지로 구축하여 2021년 4월 16일에 배포하였고 이후 2주 동안 응답을 받았다. 총 60개 기관 중 14개 기관(23.3%)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설문조사 대상 기관과 기초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응답 기관 기초정보

기관명	프로젝트명	국가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 Library Services, Springfield College(이하 스프링필드 대학 기록관)	COVID-19 Experience	US
Athabasca University, Archives & Special Collections at Athabasca University(이하 아타바스카 대학 기록관)	COVID-19 Memory Archive Project	C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ibrary Special Collections and Archives(이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	Cal State LA Pandemic Diaries Project	US

Fordham University Libraries(이하 포덤 대학 도서관)	Fordham University COVID-19 Digital Archive	US
Oregon State University's Special Collections and Archives Research Center(이하 오레곤 주립대학 기록관)	COVID Collecting	US
Princeton University, Seeley G. Mudd Manuscript Library(이하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	Covid-19 & Me: Oral History Project	US
Research Department, DiMenna-Nyselius Library, Fairfield University(이하 페어필드 대학 도서관)	Documenting the Fairfield University Experi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S
Ryerson University Archives & Special Collections(이하 라이어슨 대학 기록관)	Ryerson COVID-19 Community Archive	US
San Francisco History Center, San Francisco Public Library(이하 샌프란시스코 시립도서관)	COVID-19 Community Time Capsule	US
Saskatoon Public Library Local History Room(이하 사스카툰 주립도서관)	Local History COVID-19 Archive Project	CA
Tasmanian Archives(이하 태즈메이니아 기록관)	COVID-19 Stories Project	AU
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 Libraries' Archives & Special Collections(이하 네브래스카 대학 기록관)	DOCUMENTING COVID-19 IN OMAHA	US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Libraries(이하 텍사스 알링턴 대학 도서관)	COVID-19: Archive Your Experience	US
익명 응답기관		

설문지에서는 수집하는 주요 기록의 유형, 성문화된 수집 정책 여부와 그 이유, 수집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COVID-19 아카이브 이용자 범위, 주로 이용하는 수집 방식, 매체별 저장 방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수집제외기록에 관한 정책, 저작권에 관한 정책, 보유기간으로 문항을 구분하였다. 또한 향후 수집 계획,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 수집 방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 응답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수집 유형과 관련해서 현재 COVID-19 아카이브에서 주요하게 수집되는 기록의 유형과 COVID-19 아카이브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수집되고 있는 기록 유형을 조사하였다(〈표 2〉 참조).

〈표 2〉 설문 응답 기관의 COVID-19 아카이브 주요 수집 기록물 유형

대상 기관	사진	영상	음성	텍스트 (Diary, Journal, Essay, Poetry)	구술기록 (Oral history, Interview)	SNS	기타
스프링필드 대학 기록관		●	●	●	●		
이더버스카 대학 기록관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				●			
포덤 대학 도서관					●		이메일, 웹페이지, 연구문헌(research articles)
오레곤 주립대학 기록관	●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					●		
페어필드 대학 도서관	●			●			
라이어슨 대학 기록관				●			
샌프란시스코 시립도서관	●	●		●			
사스카툰 주립도서관				●			
태즈메이니아 기록관		●				●	
네브래스카 대학 기록관							디지털 컬렉션
텍사스 알링턴 대학 도서관	●	●	●			●	
익명 응답기관				●			개인 창작물
합계	4	4	2	8	3	2	

14개 설문조사 대상 기관 중 해당 항목에 답변하지 않은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을 제외한 13개 기관에서 가장 많은 기관이 중점을 두고 수집하는 기록은 텍스트 형식(8개 기관, 61.5%)이었다. 텍스트 형식 기록에는 Google Form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사진 및 음성, 동영상상을 포함하지 않는 일기(Journal, Diary)나 시(Poetry), 수필(Essay) 등의 문학적 창작물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각각 4개 기관(30.7%)에서 수집되고 있는 사진, 영상 형식의 기록이 뒤를 이었다. 음성, 구술기록, SNS 형태의 기록을 주요하게 수집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각각 2개(15.4%)였다. 이외 주요 수집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록에는 이메일 및 웹페이지와 연구문헌(research articles)(포덤 대학 도서관), 개인 창작물(artworks)(익명 응답기관)의 경우가 있었다. 또한 네브래스카 대학 기록관에서는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언급 없이 디지털 컬렉션만이 주요 수집 유형이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로, 수집 정책에 관해서는 성문화된 수집 정책의 여부와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수집 정책이 존재하는 기관의 경우 정책에 포함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다. 성문화된 수집 정책(written record collection policy)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14개 중 12개로 전체의 78.5%에 달했다. 해당 기관들의 수집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COVID-19 아카이브 성문화된 수집 정책 내 정책 요소

	스프링 필드 대학 기록관	포덤 대학 도서관	오레곤 주립 대학 기록관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	페어필드 대학 도서관	라이어슨 대학 기록관	샌프란시스코 시립 도서관	사스카툰 주립 도서관	테즈메이나아 기록관	네브래스카 대학 기록관	텍사스 알링턴 대학 도서관	익명 응답 기관	합계
아카이브의 사명과 목적	●	●	●	●	●	●	●		●				8
이용자 정의													0
기록물 범주		●	●	●	●	●				●		●	7
수집 참여자 정의	●	●		●				●	●	●	●	●	8
수집 방법 정의	●	●	●	●	●			●	●	●	●		9
수집 절차 정의	●	●		●	●		●	●	●	●	●		8
수집 매체 정의	●	●		●	●	●	●	●		●	●	●	10
수집 우선순위						●					●		2
개인정보 보호	●		●	●	●	●			●			●	7
저작권	●	●	●	●	●	●	●	●	●		●		10
수집 제의 항목						●			●		●		3
수집 절차 개정													0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12개로 구분한 수집 정책 요소 중 가장 보

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수집 매체에 대한 정의와 저작권 관련 사항에 관한 요소로, 12개 중 10개 기관(83.3%)이 채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수집 방법 정의에 관한 요소는 12개 중 9개 기관(75%)의 수집 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이브의 사명과 목적, 수집 참여자 정의, 수집 절차 정의에 관한 요소는 12개 중 8개 기관(66.7%)의 수집 정책에 포함되어 있었다. 기록물 범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요소를 수집 정책에 포함하는 기관은 12개 중 7개 기관(58.3%)이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수집 정책 요소는 12개 중 3개 기관(25%)이 채택한 수집제외항목, 12개 중 2개 기관(16.7%)이 채택한 수집우선 순위에 관한 요소였다.

〈표 4〉 설문 응답 기관의 COVID-19 아카이브 이용자에 포함되는 집단 유형

	기증자	학생	연구자	기자	예술 종사자	일반인	내부 직원	지역 구성원	동문	기타 관계자
응답수	8	8	2	1	1	7	4	3	2	4

세 번째로, 조사 대상 기관의 COVID-19 아카이브에서 정의하는 이용자의 범주에 대한 질문에서는 복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표 4〉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한 이용자 집단은 14개 중 8개(57.1%)의 기관에서 응답한 기증자와 학생이었다. 일반인을 이용자 정의에 포함시키는 기관은 14개 중 7개(50%)였고, 내부 직원과 기타 관계자를 이용자로 정의하는 기관은 14개 중 4개(28.6%)였다. 이를 통해 COVID-19 아카이브에서 주된 이용자로 정의하는 집단은 기증자, 학생 및 일반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기할 만한 결과로, 연구자 집단을 아카이브 이용자로 정의하고 있는 기관은 14개 중 2개(14.3%)에 그친 데 반해 일반인을 포함시킨 기관은 7개(50%)였다. 이를 통해 설문응답 기관에서 연구자를 위한 기록보다는 일반인 대상의 기록 수집을 고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설문 응답 기관 COVID-19 아카이브 주요 수집 방식

	파일 형태의 기증	실물 형태의 기증	파일 형태의 구입	실물 형태의 구입	입력양식을 통한 참여	직접 조사를 통한 기록 수집
스프링필드 대학 기록관					●	
아타비스카 대학 기록관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	●				●	
포덤 대학 도서관	●				●	
오레곤 주립대학 기록관	●	●			●	●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	●				●	
페이필드 대학 도서관					●	
라이어슨 대학 기록관	●				●	
샌프란시스코 시립도서관					●	●
사스카툰 주립도서관	●	●			●	●
태즈메이니아 기록관	●			●		●
네브래스카 대학 기록관	●					
텍사스 알링턴 대학 도서관	●	●			●	
익명 응답기관	●					
합계	11	3	0	1	11	4

네 번째로, COVID-19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COVID-19 아카이브에서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록 수집 방식은 14개 중 11개 기관(78.6%)이 채택하고 있는 파일 형태의 기증과 Google Form과 같은 입력양식을 통한 참여 방식이었다. 파일 형태의 기증과 입력양식을 통한 참여 방식을 모두 수집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관은 14개 중 8개 기관(57.1%)이었다. 아카이브 담당자의 직접 조사를 통해 기록을 수집하는 기관은 사스카툰 주립도서관, 샌프란시스코 시립도서관, 오레곤 주립대학 기록관, 태즈메이니아 기록관으로 14개 기관 중 4개(28.6%)였다. 구입과 기증 방식으로 실물 형태의 기록을 수집하는 기관은 14개 기관 중

4개(28.6%)였고, 4개의 기관 중 기증 방식을 채택하는 기관은 3개(75%), 구입 방식을 채택하는 기관은 1개(25%)였다. 또한 실물 형태의 기증 방식을 사용하는 3개 기관(사스카툰 주립도서관, 오레곤 주립대학 기록관, 텍사스 알링턴 대학 도서관) 모두 파일 형태의 기증 방식을 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설문 응답 기관의 COVID-19 아카이브 주요 수집 절차

	본인 인증	전문가와의 연락	이용자 동의	기록물 생산	기관	평가	저작권 확보	등록
스프링필드 대학 기록관	●						●	
아티비스카 대학 기록관	●		●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			●			●	●	
포덤 대학 도서관	●		●				●	
오레곤 주립대학 기록관			●	●	●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				●			●	
페어필드 대학 도서관	●		●	●				
라이어슨 대학 기록관	●		●		●		●	
샌프란시스코 시립도서관	●		●		●			
사스카툰 주립도서관	●		●			●	●	
태즈메이니아 기록관		●	●	●	●	●	●	●
네브래스카 대학 기록관		●		●	●	●	●	
텍사스 알링턴 대학 도서관	●		●		●		●	
익명 응답기관	●		●	●	●		●	
합계	9	2	11	6	7	4	11	1

다섯 번째로, 기록 수집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가장 많은 설문조사 대상 기관에서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채택한 수집 절차는 14개 중 11개 기관(78.6%)이 응답한 이용자 동의와 저작권 확보 절차였다. 이용자 동의 절차의 경우 Google Form 내에서 수집된 기록에 대해 참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수집제외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묻는 방식이 대표적

이었다. 저작권 확보 절차 또한 Google Form 내의 문항이나 기증동의서(Deed of Gift)를 통해 제출한 기록의 저작권이 COVID-19 아카이브로 귀속됨을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방식이다. 두 절차를 모두 채택한 기관은 14개 중 8개 기관(57.1%)로, 반 이상의 COVID-19 아카이브에서 기록 수집을 위해 이용자 동의와 저작권 확보 절차가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4개 중 10개 기관(71.4%)에서 채택하고 있는 본인인증 절차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집 절차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용자 동의, 저작권 확보 및 본인인증 절차 모두를 기록 수집 과정에서 거치도록 하는 기관은 14개 중 6개(42.9%)였다. 따라서 위 세 가지 단계가 COVID-19 아카이브에서 기록을 수집할 때 많은 기관에서 사용되는 핵심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COVID-19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느끼는 변화의 필요성과 아카이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질문하였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은 크게 수집 정책과 수집 과정, 기타 사항으로 구분하였다. 수집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14개 중 3개 기관(21.4%)이었으며, 답변 내용에서 제안된 개선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 7>와 같다. 이 중 라이어슨 대학 기록관에서 제안한 라이선스 제공 문제나 테즈메이니아 기록관에서 제기한 명확한 수집 정책의 문제와 달리, 샌프란시스코 시립도서관에서 서술한 내용은 적용 과정의 보편성에 있어 다른 개선점과 차이를 보인다. African Activist Archive와 같이 소수자 또는 민족을 주제로 하는 참여형 아카이브가 활성화된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한국퀴어아카이브¹¹⁾ 등의 사례 이외 사회 안의 소수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집단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드물었고, 이러한 차이점은 양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소수자 집단 커뮤니티

11) <https://queerarchive.org/>

니티가 참여하는 COVID-19 아카이브를 조성한다면 민족집단별로 관련 기록을 수집하기보다 국내의 실정에 맞게 특정 직종, 연령, 지역 등을 기반으로 한 소수자의 정의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에 기반해 수집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이다.

〈표 7〉 설문 응답 기관의 COVID-19 아카이브 수집 정책 개선점

개선 분야	구체적 개선점
이용자 정의	소수자 집단 및 민족적인 커뮤니티의 아카이브 참여 확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함(샌프란시스코 시립도서관)
저작권	기록 기증자에게 요구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제공이 일부 커뮤니티의 기록 기증을 제한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함(라이어슨 대학 기록관)
기타	더 명확한 수집 정책이 필요함(태즈메이니아 기록관)

수집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14개 중 7개 기관(50%)이었으며, 응답 과정에서 정리된 대표적인 개선점은 다음과 같았다. 다만 설문문의 내용이 수집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점을 주관식으로 제출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현재 아카이브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는 정도의 답변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표 8〉 설문 응답 기관의 COVID-19 아카이브 수집 과정 개선점

개선 분야	구체적 개선점
수집 매체	SNS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태즈메이니아 기록관)
개인정보보호	기록 제공자의 익명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함(익명 응답기관)
수집제외항목	수집되는 파일 용량의 제한이 필요함(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
저작권	기증동의서와 저작권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현재 사용 중인 QuestionPro 양식에 통합하여야 함(텍사스 알링턴 대학 도서관)
외부이용자 지원	다양한 부서 및 커뮤니티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포덤 대학 도서관, 라이어슨 대학 기록관, 스프링필드 대학 기록관)

수집 정책, 수집 과정, 기타 사항에서의 개선점을 종합한 결과 COVID-19 아카이브에 필요한 변화에 관하여 두 가지의 일관된 주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더 많은 집단으로부터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COVID-19 아카이브에서 부서 간 협력, 수집 과정에 대한 홍보, 수집 정책 내 저작권 관련 사항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대상 기관 중 대부분의 COVID-19 아카이브가 일반인과 지역사회, 학내 커뮤니티 구성원을 이용자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기록 수집 대상의 편중을 방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자 범위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다. 두 번째는 저작권 관련 사항의 개선에 관한 것이다. COVID-19 아카이브의 참여자들로부터 익명으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의 부재, 다양한 공동체로부터의 기록 수집을 제한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조항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고 기증동의서 및 저작권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획득 방안을 마련하여 수집 방식과 수집 매체의 다양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국내 COVID-19 아카이브 현황 조사

국내에서 COVID-19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COVID-19 관련 기록의 수집 정책 및 절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를 통해 COVID-19 아카이브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 성문화된 수집 정책과 가이드라인의 제정 과정, 수집 매체별 수집 절차와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관련 사항의 처리 및 시사점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인터뷰 대상 COVID-19 아카이빙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OASIS(담당자 A)와 성북문화원 산하 성북마을아카이브(담당자 B, C)이었다. 조사기간은 2021년 4월 21일부터 28일까지로, 직접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지의 문항은 해외 기관 COVID-19 아카이브 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내용과 유사하며 크게 기본현황, 수집 정책 및 방법, 시사점으로 구분하였다. 기본현황에서는 COVID-19 아카이브를 조성하게 된 계기와 부서 내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구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수집 정책 및 방법에서는 중점을 두고 수집하는 기록 유형과 매체, 수집 과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성문화된 수집 정책 여부와 그 이유, 수집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정책에 관해 질문하였다.

OASIS는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하여 2014년부터 국가재난아카이브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OASIS 내에서는 총 8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국가재난아카이브 내 COVID-19 관련 컬렉션이 수집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1월 30일로, 국내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시기이면서 기록 수집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었다. OASIS에서는 이전에 비슷한 양상의 전염병인 MERS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기록을 수집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COVID-19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신속한 자료 수집이 가능했다고 하였다. 최초의 자치구 아카이브이기도 한 성북마을아카이브의 경우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 구축 과정을 진행하였다. 성북마을아카이브에서 주로 수집하는 기록은 COVID-19로 인해 변화한 성북구의 일상 모습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COVID-19 관련 방역이나 지역공동체의 반응에 대해 직접 촬영한 사진, 공모전에 출품된 COVID-19 극복에 관한 그림 등이 수집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첫째, 수집 매체와 관련하여 OASIS의 경우 그 목적 자체가 웹사이트를 수집 및 보존하는 데에 있으므로 수집하는 매체의 종류는 주기적으로 수집되는 웹사이트, 웹문서, 이미지 파일에 국한하고 있다. 성북마을아카이브의 경우 수집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들은 사진 파일과 구술과정의 동영상 또는 녹음자료,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을 찍은 사진 파일 등이 있다.

둘째, 수집 과정과 이에 따르는 수집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OASIS의 수집 과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을 준수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을 기반으로 한 「국립중앙도서관 웹자원 수집 지침(이하「웹자원 수집 지침」)」(2020)을 별도로 마련하여 일관된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웹자원 수집 지침」은 OASIS에 적용되는 수집 정책에 해당되며, 수집 목적, 법적 근거, 관련 용어정의, 수집 대상, 수집 기준, 수집제외대상, 수집 절차, 공개 및 보존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 수집 정책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정책 요소와 관련하여 수집 자원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성북마을아카이브에서는 COVID-19 관련 기록물을 위한 수집 정책을 따로 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정책을 준용하고 있었다. 내부지침은 공개 대상은 아니며, 업무 매뉴얼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신규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2018년 아카이브 구축 당시에는 이러한 지침이 없었으나, 자체적으로 메타데이터를 개발하고 이후 기록의 선별과 중요도 평가를 위한 지침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국가기록원의 매뉴얼과 민속박물관의 매뉴얼을 참고해 형식을 만들고, 기존에 축적한 메타데이터 작성법에 대한 노하우를 모아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작성하였다. 담당자 C는 민간기록물의 경우 성북구의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수집을 하고 팀 내에서 별도로 이를 위한 지침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구체적인 수집 절차와 관련하여 OASIS의 수집 방식은 선택적 수집과 망라적 수집으로 구분된다. COVID-19 컬렉션과 같은 국가재난 아카이브 구축은 선택적 수집 방법으로 수집된다. 우선 특정 이슈나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한 후, 해당 주제에 대한 컬렉션 구축 여부를 결정한다. 웹자원을 선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수집 대상

에 따라 신뢰성, 유일성, 적합성, 유용성, 가치성, 대중성, 언어, 시급성, 접근 용이성 등 조건을 평가한 후, 웹 크롤러를 통해 특정 도메인 내의 정보를 내보내기하여 수집을 진행한다. 담당자 A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사이트는 6개월 주기로 수집하고 500대 기업 사이트는 1년에 한 번씩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COVID-19 확진자 발생이나 백신 개발과 같은 특정 이슈가 있으면 매일 수집하게 하는 설정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성북마을아카이브의 경우 주요 수집 대상인 YouTube를 통한 시청각 기록물, 직접 수집을 통한 사진기록물, 지역 내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의 사진 사본, 관련 기사 등 웹자원을 “코로나19”라는 주제 하에 공개하고 있다. 성북마을아카이브에서는 이들 기록의 수집 방식을 크게 직접 생산과 협력을 통한 수집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록물이 디지털 기록물이기 때문에 성북마을아카이브에서는 관리시스템을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따로 하드드라이브에 백업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록물들을 저장하고 있다. 시스템은 프로젝트 시작 시기인 2018년 구축되었으며, 명칭, 파일 정보, 관련 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링크, 저작권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웹자원의 경우에는 직접 파일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링크를 만들어서 간단한 내용을 정리하고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에 정책의 보유 여부 및 적용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OASIS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OASIS의 저작권 대상은 기존 국립중앙도서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웹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처리는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존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하고 있으나 아직 소장자료 내에 있는 개인정보까지는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 자료는 이용을 제한하

고, 보존용으로만 아카이빙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성북마을아카이브의 경우 구술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구술동의서를 통해 저작권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었다. 성북마을아카이브의 경우에도 구술동의서를 이용하는 구술기록물 이외 다른 유형의 기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았고, 만약 수집한 기록물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COVID-19라는 재난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재난과 재난 아카이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재난 관련 기록물 수집을 처음으로 진행하는 성북마을아카이브의 경우 COVID-19 관련 기록물 및 다른 지역기록물을 수집하며 점진적으로 지침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기록화 및 웹툰 등의 콘텐츠 제작을 계획하는 등 기관 간 네트워크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4. COVID-19 아카이브 수집 방안

COVID-19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 변화의 양상을 기록하고 여러 주체가 생산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집 정책 내 구성요소와 정책 외부적인 수집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COVID-19 아카이브 수집 방안을 서술하였다.

1) 수집 정책 구성요소

수집 정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은 수집 대상이 되는 기록과 그

출처가 되는 참여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다양한 수집 방식에 따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며, 법적 고려사항에 있어 확고한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문헌연구, 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기관들의 정책 요소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는 아카이브의 수집 목적과 법적 근거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아카이브가 수집하여야 할 기록의 범주를 규정하고 자세한 매체에 관한 사항을 서술한 요소가 제시되었다. 특히 설문 응답 기관인 해외 COVID-19 아카이브에서 수집 매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수집 정책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수집 정책을 보유한 기관의 83.3%에 달했다. 또한 수집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도 주요 요소로 꼽혔다. 저작권 보호 및 확보에 관한 정책 요소는 설문 응답 기관과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 정책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기관에서도 COVID-19 아카이브에서 수집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구축될 COVID-19 아카이브를 위한 수집 정책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수집 목적, 수집 범위 및 매체, 수집 과정 및 절차, 저작권 관련 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수집 참여자 정의, 아카이브 이용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수집 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로 제시하였다.

(1) 수집 목적

수집 목적의 경우 국립도서관 중심으로 구축된 HINAGIKU와 OASIS에서 비교적 충실한 수집 목적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HINAGIKU의 경우 1) 동일본 대지진 기록을 국가 전체적으로 수집·보존·제공하고, 2) 관련 협동을 통해 국가적 지진 재난 아카이브(archive)로서 기능하며, 3) 동일본 대지진의 기록을 예방 복구,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OASIS의 경우 1) 국내 인터넷 지식자원의 보존 및

영구적 이용을 보장하고 2) 소멸되기 쉬운 공개된 웹자원을 국가의 디지털 지식 문화유산으로 수집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연구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수집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두 기관에서 설정하고 있는 수집의 범위는 다르나 해당하는 국내의 모든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여 후세에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COVID-19 아카이브에서도 기관의 사명과 목표에 부합하는 수집 목적을 명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2) 수집 범위 및 매체

수집 범위 및 매체에 관해서는 수집하는 기록의 주제와 매체를 모두 정책 안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 수집 범위는 텍사스 알링턴 대학 도서관과 같이 지리적인 연관성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라이어슨 대학 기록관과 같이 커뮤니티 구성원이 생산한 기록으로 한정할 수도 있다. 수집 매체의 경우 보존이 가능한 확장자와 용량에 대한 기준을 기관 내에서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집 과정 및 절차

수집 과정 및 절차 요소는 수집 기록의 매체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기관이 대다수였다. 기존 종이기록 및 박물과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실물 기록을 제외하고 파일 형식 기록은 서버 또는 클라우드에 참여양식을 통해 수집된 기록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 후 변환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이외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이 이용하는 Born-Digital Workflows의 경우 DROID(Digital Record and Object Identification)와 Emailchemy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각 디지털 기

록과 이메일 기록의 서버 업로드와 장기보존포맷 변환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4) 저작권 관련 사항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증동의서 양식 또는 참여양식 내 동의 문항을 통해 제출한 기록의 복사, 복제, 변환, 편집, 전송, 번역, 배포, 공개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태즈메이니아 기록관과 같이 별도의 수집 정책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상위기관인 TMAG(Tasmanian Museum and Art Gallery)의 이용약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었다. 기증동의서 양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참여양식을 이용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부가적 수집 요소

주요 수집 요소에 꼽히지 않은 정책 요소에는 수집 참여자 정의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소가 있었다. 수집 참여자 정의는 대다수 조사 대상 기관의 수집 정책 내에 포함되기보다 담당자의 공지사항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북마을아카이브가 수집 참여자로 규정하는 ‘성북문화원 직원 및 성북구민’ 또는 라이어슨 대학이 수집 참여자로 명시하는 ‘대학 구성원’과 같이 수집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집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향후 수집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의 경우 기관 내에서 저작권 관련 사항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의 경우와 같이 참여양식을 통한 수집 과정, 파일 기증을 통한 수집 과정 중에서 제출되는 기록이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기증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2) 수집 방법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 정책 내의 시사점 이외에도 전체적인 절차와 이용자 중심 수집 방식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크게 참여자 집단의 다양화와 참여형 기록 수집 방식 도입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1) 참여자 집단의 다양화

수집 과정에서 COVID-19 아카이브에 기록을 제공하는 집단과 기록의 잠재적인 이용 대상이 되는 집단의 범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COVID-19 아카이브 중 설문조사 대상 기관에서는 14개 중 8개 기관(57.1%)에서 이용자 집단으로 정의하는 기증자와 학생, 14개 중 7개 기관(50%)에서 응답한 일반인을 주요한 이용자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일반인과 학생, 기증자가 이용하는 아카이브라면 홍보 전략의 다각화를 통하여 최대한 다양한 집단의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COVID-19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참여자 집단을 정의하고, 수집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COVID-19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인 OASIS와 성북마을아카이브의 경우 웹 아카이빙의 특성 상 참여자 집단을 정의하지 않거나, 관내(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상대적으로 느슨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 COVID-19 아카이브 구축을 시도하는 기관에서는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집단을 수집 참여자로 간주하고 해당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 경험의 기록화를 추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 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홍보 방식을 다각화할 수 있다. 조직 내 마케팅(PR), 업무부서, 홍보팀과 협력하여 학교 도메인이 아닌,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대한 웹사이트를 별도로 제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브래스카 대학 기록관과 스프링필드 대학 기록관에서는 Omeka를 통한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수집과 보존, 공개 과정을 일원화 하고 있다. 또한 상위기관인 학교, 도서관, 기록관의 공지사항이나 기사를 통해 학내 구성원,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COVID-19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있음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까지 수집한 기록을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기록콘텐츠를 만들어 YouTube, Instagram 등에 게시하는 활동도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세 번째로, 수집 매체별 저작권 관련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라이어슨 대학의 경우 기록 기증 절차에서 요구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제공이 일부 커뮤니티로 하여금 기록 기증에 소극적이게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저작권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카이브와 참여자 간 입장이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기관의 일관된 입장이 COVID-19 아카이브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참여형 기록 수집 방식 도입

기증과 이관 중심의 기록 수집 방식에 더하여, 다양한 양식을 활용한 이용자 참여형 기록 수집 방식이 기관의 수집 방식으로 채택될 수 있다. 참여형 기록 수집이란 파일의 기증이나 인터뷰 방식과는 달리 Google Form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 양식에 맞추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한 것을 아카이브 측에 전송하는 것이며, 전염병 환경 하에서 상호 접촉에 대한 부담을 덜고 편리성과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양식의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자의 경험과

생각은 진행 중인 재난으로 입은 피해, 지역사회의 극복 과정, 나아가 개인의 감상을 반영한 수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표현된다. 참여형 기록 수집 방식은 생산과 동시에 수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생산하였던 기록물을 기증 또는 이관하는 절차와 명확히 구분된다. 아직 국내 COVID-19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에서는 참여형 방식을 사용하는 곳은 없었으나, 향후 국내 COVID-19 아카이브에서 참여형 기록 수집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유용한 방식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형 기록 수집 방식의 도입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내러티브를 서술하도록 하는 양식을 효과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중복되거나 한꺼번에 지나치게 긴 답변을 서술해야 하는 문항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의 특성이 더 잘 드러나도록 연령과 성별, 소속 집단과 대략적인 거주지 등에 대한 문항을 먼저 작성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에서는 성명란, 가명 또는 필명란(선택), 성인 여부, 이메일 주소, 실제 주소, 대학 내 소속을 밝히는 문항을 삽입하였다. 첨부파일을 제출할 수 있는 참여양식이라면 간략하게 기술할 것을 요청하는 문항을 추가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 내러티브가 주를 이루는 참여형 기록의 특성상 일반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대부분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상 기관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은 일괄적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양식에서도 법률에 의거한 개인정보를 가능한 포함하지 않는 기록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익명 처리를 요구하는 참여자에 대비하여, 관련 절차를 참여양식이나 아카이브 페이지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참여자 성명란을 선택사항으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5. 결론

COVID-19 아카이브는 재난 아카이브의 일종이며, COVID-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경제사회적인 손실 및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다양한 기록들을 수집, 보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증거의 차원, 예방의 차원, 집단적 기억의 차원에서 가치가 있는 재난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 발생과 복구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외 COVID-19 아카이브에서는 이미 수집 과정을 거쳐 기록물을 공개 및 이용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들이 다수 있었고, 수집 정책에 있어 각 기관에 맞는 수집 정책과 절차를 문서로 제시하고 있는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충분한 지속성과 규모를 갖춘 COVID-19 아카이브 구축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COVID-19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초기 연구로서, 해외 COVID-19 아카이브에서의 수집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국내에서 COVID-19 아카이브를 구축한 기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통적인 수집 정책 및 방법과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해외 아카이브에서는 COVID-19 관련 사회구성원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웹 기록 수집과 참여형 기록 수집 방식을 사용하여 관련 기록을 생산과 동시에 보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문화된 수집 정책을 제정하고 저작권 동의서, Google Form 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내에서도 COVID-19 관련 웹 아카이빙 및 공동체 아카이빙을 진행하는 기관이 있으나, COVID-19의 특성을 고려한 아카이브 수집 정책이나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참여라는 면에서 한계를 보여 추후 기록의 수집과 보존, 이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현재진행형의 재난인 COVID-19 아카이브의 공통적인 특성을 제시하는 데 치중하여 수집기관이나 정책요소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COVID-19라는 재난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아카이브가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는가를 파악하고 기록 수집에 있어 이후 프로젝트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범유행 전염병으로서 COVID-19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록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각 기관의 실무와 지역사회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2020). 국립중앙도서관 웹자원 수집 지침.
- 김신권 (2021). 감염병과 대유행: 인문 의학적 관점. 문화와 융합, 43, 35-54.
- 김원제 (2003). 한국사회 위험 (Risk) 의 특성과 치유. 사회연구, 4, 169-196.
- 김현정 (2017). 재난기록의 웹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27-56.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2.027>
- 김학래 (2020). “코로나-19: 우리의 기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사회변화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229-236. <http://dx.doi.org/10.14404/JKSARM.2020.20.4.229>
- 박진경, 김유승 (2017).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 219-24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2.219>
- 박찬희 (2019). 재난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COVID-19 백서
- 송주형 (2015).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155-197. <http://dx.doi.org/10.20923/kjas.2015.44.155>
- 신동희, 김유승 (201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 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1-30. <http://dx.doi.org/10.14404/JKSARM.2016.16.3.001>
- 안병우 (2015). 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 기록학연구, 44, 217-241.
- 양상미 (2008). 대학기록관 기록물 수집 정책의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유신성, 오효정 (2021). 재난백서 구축을 위한 온라인 기록물 활용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2), 135-154.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2.135>

- 유호선, 오효정 (2018). 이슈 생존 주기 모형 기반 재난 아카이브 수집 방안. 정보관리학회지, 35(2), 115-139. <http://dx.doi.org/10.3743/KOSIM.2018.35.2.115>
- 이미영 (2009). 재해지역의 기록화 사례 연구: 한신 아와지 대지진 기록관리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1, 85-116.
- 정혜지 (2016). 미국 9·11 메모리얼의 재난기록물 수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정혜지, 이승휘 (2018). 미국 9·11 메모리얼의 설립과 재난컬렉션 수집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5, 235-273. <http://dx.doi.org/10.20923/kjas.2018.55.235>
- 주강원 (2014). 재난과 재난법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5(2), 415-439. <http://dx.doi.org/10.16960/jhrl.15.2.201406.415>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서울 : 역사비평사.
- 한순미 (2020). 재난과 교차하는 서사: 역사 기록 속 재난 읽기의 방법. 인문연구, 90, 35-64.
<http://dx.doi.org/10.21211/JHUM.90.2>
- 한희정, 강주연, 김용, 오효정 (2017). 자동수집 기반 재난안전 기록정보자원 아카이브 설계 및 구축전략.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4), 127-154. <http://doi.org/10.14404/JKSARM.2017.17.4.127>
- 홍승혜, 박길성, 김영선, 강수환 (2020). 넘치는 백서, 부족한 백서: 위협의 사회적 추적으로서 메르스 백서를 진단한다. 한국사회, 21(1), 3-34.
- 홍영의 (2015). 4·16 참사 기억·기록운동의 전개과정과 의미: 2014년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학논총, 43, 293-322.
- Adams, B., & Milstein, D (2021). Improvisation, Design, and Sociality during the Pandemic: A Conversation with Denise Milstein from the New York City COVID-19 Oral History, Narrative and Memory Archive. Design and Culture, 13(1), 43-52. <http://dx.doi.org/10.1080/17547075.2020.1871557>
- Lee, A. P., & Springer, K. (2020). Socially Engaged Oral History Pedagogy amid the COVID-19 Pandemic. The Oral History Review, 47(2), 227-239. <http://dx.doi.org/10.1080/00940798.2020.1793678>
- Neatrou, A. L., Myntti, J., & Wittmann, R. J. (2020). Documenting contemporary regional history: the Utah COVID-19 digital collection. Digital Library Perspectives.
- Rivard, C. J. (2012). Archiving Disaster: A Comparative Study of September 11, 2001 and Hurricane Katrina . Doctoral dissertation, UC Santa Cruz,
- . (2014). Archiving disaster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digital realm. In Identity technologies: Constructing the self onlin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32-143.

- Shigeo Sugimoto (2014). Digital archives and metadata as critical infrastructure to keep community memory safe for the future - lessons from Japanese activities, Archives and Manuscripts, 42(1), 61-72. <http://dx.doi.org/10.1080/01576895.2014.893833>
- Tebeau, M. (2021).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Rapid-Response Archiving Meets the Pandemic, Collections: A Journal for Museum and Archives Professionals, 1550190620986550. <http://dx.doi.org/10.1177/1550190620986550>
-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at the World Trade Center Foundation (2018).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 Wheelock, H., Dickson, M., & Barrett, E. (2020). The threads of history: why record your pandemic experiences for the RCPI archive?. Irish Journal of Psychological Medicine, 1-2. <http://dx.doi.org/10.1017/ipm.2020.48>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2013). 国立国会図書館東日本大震災アーカイブ構築プロジェクトの基本的な方針.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2013). 東日本大震災アーカイブ収集等実施計画.

〈관련 법령〉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대통령훈령 제 22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 17698호.

〈웹 사이트 및 언론기사〉

- 국가기록원, 감염병 사상 첫 ‘코로나19 백신’ 만든다. (2020. 12. 30). 동아일보.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30/104696614/1>
-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코로나19 아카이브’ 사업 성황리 마무리. (2021. 3. 2). 뉴스와이어. 출처: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19244>
- 5천만 사망한 ‘스페인 독감’에서 코로나19를 읽는다. (2020. 03. 31). 동아일보. 출처: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35006.html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http://www.kdca.go.kr/contents_es?mid=a40509010000
- Pandemic Influenza Storybook <https://www.cdc.gov/publications/pandflu/index.html>
- The Deadly Virus: The Influenza Epidemic of 1918 <https://www.archives.gov/exhibits/influenza-epidemic/>
- The American Influenza Epidemic of 1918-1919: A Digital Encyclopedia <https://www.influenzaarchive.org/>

Global Health Events web archiv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https://
www.nlm.nih.gov/webcollecting/index.html](https://www.nlm.nih.gov/webcollecting/index.html)

〈부록 1〉 설문조사 대상 COVID-19 아카이브 프로젝트

구분	기관명	COVID-19 아카이브 프로젝트명	웹사이트 URL
도서관 소속	Ball State University	Documenting everyday life in Muncie during COVID-19 pandemic	https://www.bsu.edu/news/press-center/archives/2020/4/documenting-everyday-life-in-muncie-during-covid-19-pandemic
	Brooklyn Public Library	Brooklyn COVID-19 Stories Project	https://www.bklynlibrary.org/podcasts/oral-histories
	DC Public Library	Archive This Moment DC	https://www.dclibrary.org/archivethismomentdc
	Fordham University	Fordham University COVID-19 Digital Archive	https://librarynews.blog.fordham.edu/2020/06/09/library-debuts-fordham-covid-19-archive/
	George Mason University	COVID-19 Mason Community Impact Project	https://library.gmu.edu/covid-19
	Northridge University Library	Documenting Covid-19 @CSUN	https://library.csun.edu/SCA/covid19-project
	Princeton University	Covid-19 & Me: Oral History Project	https://libguides.princeton.edu/c.php?g=937179&p=7407469
	Providence Public Library	RHODE ISLAND COVID-19 ARCHIVE	https://ricovidarchive.org/
	Sacred Heart University	Remembering COVID-19	https://library.sacredheart.edu/rememberingCOVID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COVID-19 Community Time Capsule	https://sfpl.org/locations/main-library/sf-history-center/digital-collections/covid19-time-capsule
	Saskatoon Public Library	Local History COVID-19 Archive Project	https://saskatoonlibrary.ca/collections/local-history/local-history-covid-19-archive-project/
	The University of Sydney	Collecting COVID-19 content	https://library.sydney.edu.au/collections/COVID-19-content-collection.html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UTA COVID-19 Documentation Project: Archiving the Pandemic	https://libraries.uta.edu/collections/special-collections/pandemic
	The University of Utah	UTAH COVID-19 DIGITAL COLLECTION	https://lib.utah.edu/services/digital-library/COVID19_digitalcollection
	University of Georgia	Documenting COVID-19	https://www.libs.uga.edu/covid-collection
William & Mary Libraries	Documenting life during COVID-19	https://libraries.wm.edu/libraries/departments/special-collections/documenting-life-during-covid-19	

	Ball State University	Documenting everyday life in Muncie during COVID-19 pandemic	https://www.bsu.edu/news/press-center/archives/2020/4/documenting-everyday-life-in-muncie-during-covid-19-pandemic
	Brooklyn Public Library	Brooklyn COVID-19 Stories Project	https://www.bklynlibrary.org/podcasts/oral-histories
	DC Public Library	Archive This Moment DC	https://www.dclibrary.org/archivethismomentdc
기록관 소속	Alaska State Archives	#ourcovid19story	https://lam.alaska.gov/our-covid19-story
	Athabasca University	COVID-19 Memory Archive Project	http://archives.athabascau.ca/covid-19-memory-project/
	Brown University	Brown University Library COVID-19 Community Archive Project	https://library.brown.edu/create/covid-19/ https://browncovidarchive.omeka.net/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COVID-19 Experiences Collection	https://digital.archives.caltech.edu/covid-19/contribute
	California State Archives	California COVID-19 Archive	https://www.sos.ca.gov/archives/california-covid-19-archiv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al State LA Pandemic Diaries Project	https://www.calstatela.edu/specialcollections/pandemic-diaries-project
	Columbia University	Documenting COVID-19 at Columbia	https://library.columbia.edu/libraries/cuarchives/covid-19.html
	Fairfield University	Documenting the Fairfield University Experi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librarybestbets.fairfield.edu/documentingCOVID19/Home
	Great Valley State University	COVID-19 Journaling Project	https://www.gvsu.edu/library/specialcollections/covid-19-journaling-project-98.htm
	Harvard University	COVID-19 Community Archiving Project	https://covid19.archives.harvard.edu/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UASC documentation of COVID-19 and Illinois Tech	http://archives.iit.edu/COV19-collecting
	Indiana University	The Coronavirus Days: Archive Your Story	https://libraries.indiana.edu/coronavirus-days-archive-story
	Luther College	Documenting the Luther College Student Experience of COVID-19	https://www.luther.edu/archives/donate/covid19/
	Minnesota State University	COVID-19 Community History Project	https://libguides.mnsu.edu/covid19communityhistoryproject
	Nevada State Archives	Nevada State Archives' COVID-19 Preservation Program	https://nsla.nv.gov/covid_preservation_program

Oregon State University	COVID Collecting	https://archive-it.org/collections/14034
Princeton University	Covid-19 & Me: Oral History Project	https://libguides.princeton.edu/c.php?g=937179&p=7407469
Public Archives of Hawai'i	HAWAII COVID-19 COMMUNITY ARCHIVES	https://ags.hawaii.gov/archives/hawaii-covid-19-community-archives/
Ryerson University	Ryerson COVID-19 Community Archive	https://library.ryerson.ca/asc/covid-19-ryerson-university-community-experience-archives/
San Diego State University	SDSU COVID-19 Memory Project	https://library.sdsu.edu/covid-19-memory-project
Sarah Lawrence College	Documenting the Student Experience of COVID-19 at Sarah Lawrence College	https://slccovid.omeka.net/about
Simcoe County Archives	Collecting Community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simcoe.ca/Archives/Pages/Collecting_Community_Responses_to_COVID-19.aspx
Springfield College	COVID-19 Experience	https://sccovid19.omeka.net/contribute-guidelines
Stanford University	COVID-19 Community Archiving Project	https://library.stanford.edu/spc/university-archives/about-archives/projects/covid-19-community-archiving-project https://historicalsociety.stanford.edu/news/stanford-university-covid-19-oral-history-project
State Archives of North Carolina	Your Story is North Carolina's Story	https://archives.ncdcr.gov/researchers/your-story-north-carolinas-story
Stony Brook University	DOCUMENTING COVID-19: STONY BROOK UNIVERSITY EXPERIENCES	https://library.stonybrook.edu/special-library-initiatives/documenting-covid-19/
Tasmanian Archives	COVID-19 Stories	https://libraries.tas.gov.au/features/Pages/covid-19-stories.aspx
The University of Edinburgh	Preserving the memories of life in lockdown	https://www.ed.ac.uk/covid-19-response/our-community/preserving-the-memories-of-life-in-lockdown
Tufts University	COVID-19 Documentation Project	https://dca.tufts.edu/donate/COVID-19-Documentation-Project
University of Hartford	YOUR EXPERIENCE DURING COVID-19	https://www.hartford.edu/academics/library/archives-and-special-collections/covid-19-experience/
University of Liverpool	Pandemic Archive	https://libguides.liverpool.ac.uk/library/sca/pandemicarchive

	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	DOCUMENTING COVID-19 IN OMAHA	https://covid19omaha.omeka.ne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Documenting COVID-19	https://www.library.wisc.edu/archives/archives/donate-your-materials/documenting-covid-19/
	University of York	The York Covid-19 Archive	https://www.york.ac.uk/borthwick/abouttheborthwick/projects/york-covid-19-archive/
	Villanova University	DOCUMENTING COVID-19	https://library.villanova.edu/about-falvey/coronavirus/submit-your-story
	Xavier University	COVID-19 & Xavier: A Digital Collection	https://libguides.xavier.edu/archives/covid19XU
박물관 소속	Heinz History Center	Experiencing History: Collecting Materials Related to the Coronavirus and COVID-19 Response	https://www.heinzhistorycenter.org/collections/collecting-materials-related-to-the-coronavirus-covid-19-response/#1541011391447-102bb174-be2e
	Illinois State Museum	Illinois Stories- COVID-19	http://www.idaillinois.org/digital/collection/p16614coll64/
	MICHIGAN HISTORY MUSEUM	COLLECTING COVID-19	https://www.michigan.gov/mhc/0,9075,7-361-99041_99042---,00.html
	Museum of Perth	COVID-19 Digital Archive	https://www.museumofperth.com.au/covid19
	Royal BC Museum	Tell Us Your COVID-19 Story	https://royalbcmuseum.bc.ca/tell-us-your-covid-19-story